

경기, 강원도에 분포하는 장석광상의 성인분류 및 실태연구

이한영* · 박중권 · 고상모
(한국지질자원연구원 · 지질연구부)

다양한 고부가 산업원료로 사용되고 있는 장석의 국내 생산량은 연간 389,361M/T(약 180억원), 총수요량은 502,205M/T(약 240억원, 2001년도 광산물 수급현황, 산자부)이다. 따라서 국내에 분포하는 장석광상의 산출상태 및 성인에 대한 연구조사가 필요한 실정이며 경기도, 강원도에 분포하고 있는 장석광상의 현장답사 확인조사를 시행하였다.

국내장석광 부존의 대부분은 화강암류 관입암체나 주변의 결정질 변성암체에 분포하며 성인별 유형분류는 1)페그마타이트, 2)우백질화강암, 3)변성암류의 장석농집대, 4)규장암 및 산성암맥류, 5)열수변질대, 6)풍화잔류광상으로 나누어 진다.

연구지역에 분포하는 장석광산은 19개이며 대부분이 휴광상태이나 4곳의 광산에서 가행상태이며 개발의 형태는 노천채굴이다. 성인분류는 화성기원이 7곳, 변성기원이 7곳, 페그마타이트기원이 5곳이다. 본역에서는 경기변성암류복합체와 화강암류 및 산성암맥들이 분포하여 장석광은 다양하게 배태되어 있다.

장석의 Na+K, Al 함량은 중 -고품질에 속하나 함유되어 있는 Fe함량은 광산에 따라 많은 변화를 보인다. 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자료처리 및 고부가화 응용으로 국내 장석광의 활성화가 시급하다.